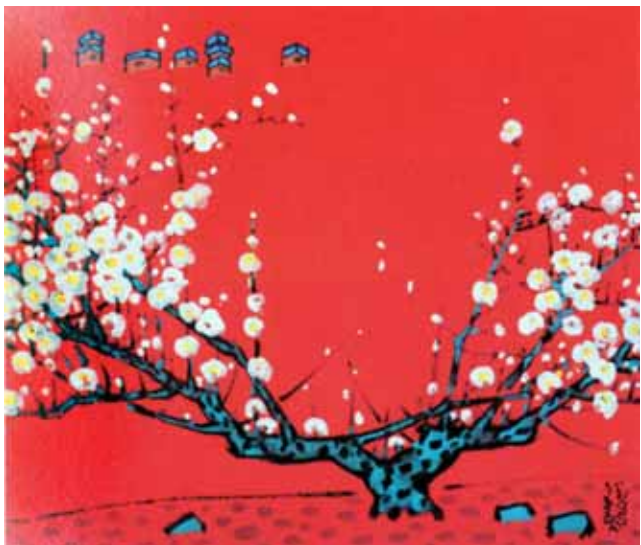


애틀라아트홀 예술극장 '100% 광주' 19~20일 문예회관



'한가한 봄날'

생명 에너지 가득하네

백준선 展, 5월 21일까지 소아르갤러리

그의 그림에는 꽃향기가 가득하다. 강한듯하면서 부드러운 운필의 움직임에 따라 꽃과 나무는 과감하게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 화폭에는 생명력이 넘친다. 채색된 여백과 밝은 색채는 이 같은 생명의 에너지를 더욱 분출시키게 만든다.

문인화가 백준선씨가 다음달 31일까지 화순 소아르갤러리에서 열 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백씨는 '꽃비 내리던 날'을 주제로 봄을 물들이는 화사한 꽃과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봄의 전령 매화를 비롯해 방가지뽕, 닭의장풀, 개망초, 엉겅퀴, 붓꽃 등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주는 꽃들이 화폭에 펼쳐진다.

작가는 풍경도 잊지 않았다. 때로는 과감하게 산등성이를 표현했고, 때로는 섬세하게 남도 들녘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아낙네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 꽃과 나무, 남도 들녘, 바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춤추며 박혀 있는 집 등이 넓은 듯 극명하게 다른 색채감으로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인상적이기만 하다.

전남대 예술대학과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백씨는 광주 시미술대전과 전국구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의 심사·운영위원, 초대작가로 참여했다. 문의 061-371-858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계간 '문학춘추' 봄호 나와



지역에서 발간되는 계간 '문학춘추' 봄호(통권 86호·사진)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문단에 젊은 작가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지상 좌담회를 특집으로 다뤘다. 노창수·김학래·이성자·윤삼현·이성관·이정석 등 중진문인들은 젊은 작가들이 없는 문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세대간 소통과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신인 배출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특집에서는 이정석 시인이 '문학작품 속의 노인문제'를 주제로 2000년 이후 동시문학에 나타난 노인들의 삶과 죽음을 심도 있게 다뤘다. 근대화를 이끈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이르러 고립과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어 문화광 기획에서는 수필가 탁현수 씨가 '박경리문화공원'을 둘러보고 그의 문학과 생애를 집중 분석했다. 이밖에 박은주 작가의 소설, 안희두 시인의 시, 류석환 작가의 동화, 김재용 시인의 동시 등 29명의 작품이 실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3일 광주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100% 광주' 리허설에서 공연에 참가할 시민들이 연출자의 질문에 색종이로 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완성된 대본도... 전문 배우도 없다

주인공은 '빛고을 시민 100명'

3살 꼬마서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 참여

출연자·관객 질문에 답하는 방식 진행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앞줄에 서는 사람."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지 결정하고 싶은 사람."
"과거보다 현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지금 낄낄거리고 웃을 수 있는 사람."

70여명의 출연자들은 연출자 슈테판 카에키의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손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난생 처음 작품의 주인공이 돼 '무대' 위에 선다는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즐겁기도 하다. 취재를 하면서 기자도 마음 속으로 '답'을 해본다.

13일 광주 아트스페이스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이 제작하는 '100% 광주' 연습이 한창이었다. 독일 그룹 리미니 프로토퀴이 제작하는 '100% 도시' 연작은 연령, 성별, 거주지 등 통계학적 근거로 도시를 대표하는 100인을 선정, 무대 위에 도시의 축소판을 구현하는 작품이다. 2008년 '100% 베를린'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비엔나, 도쿄 등 14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100% 광주'는 광주(19일 오후 7시·20일 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와 서울(26일 오후 7시·27일 오후 3시 서울 국립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무대에 서는 광주 시민 100명은 얼마 품에 안겨 무대에 서는 최연소 참가자 김성후(3)군, 최고령자로 근로정신대였던 양금덕 할머니(84)를 비롯해 택시기사, 전업주부, 상인, 회사원, 예술가 등 다양하다. 100명의 주인공은 무대에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자랑도 하며 가장 아끼는 물건을 소개한다.

공연 때 소화하는 질문은 약 50~60개, 응답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손을 들거나, 자리를 옮기는 건 기본이고 몸짓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색종이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 "정치에 대한 분노를 어디서 표현하는가." 답은 다섯가지, '시위대, 술집, 인터넷, TV를 보며 소리 치기, 의회에 편지 쓰기.'

이정현씨 등 5명의 캐스팅 코디네이터가 100명의 사람을 연결하고, 일일이 개별 인터뷰를 통해 기본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연출자 슈테판

카에키가 화제의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작성했다. 연습 현장에 붙어있던 질문지 역시 작품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내가 발명하고 싶은 것'이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몸무게 조절약, 밥상을 자동으로 차려 주는 기계, 우는 아기 달래는 것, 흰머리 나지 않게 하는 것, 웃음 제조기, 다른 사람 생각을 읽는 안경 등을 적었다.

작품 배경은 자신의 집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을 각자가 찍은 사진이 장식한다. 그 풍경이 바로 각각의 개인과 광주를 연결해주는 이미지라고 판단해서다. 또 밴드 '신나는 섬'은 라이브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40년간 산 지미진자 할머니(72)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폐지를 주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근로정신대였던 내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줘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광주에 머물고 있는 아티스트 백규성(44)씨는 "공연이라고 하면 정해진 스토리와 틀이 있는데 전문 배우가 한명도 없는 이번 공연은 완벽하게 새로운 시도로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며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질문을 무대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지 그건 고민"이라며 웃었다.

리허설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공연 당일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공연에서 100명의 출연진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그날 객석에 앉은 관객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이다. 꼼꼼히 답을 생각하며 관람하면 의미있을듯하다. 티켓 가격 5만원~2만원. 문의 062-410-36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자! 아자!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기운Dream'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봄을 맞아 5월25일까지 상록전시관에서 '기운Dream'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에 참여하는 12명의 작가들은 흥(興), 생(生), 동(動), 가(家) 등 4개 섹션을 통해 일탈의 유머가 주는 흥, 생명과 자연이 주는 역

동적 기운, 그리고 삶을 지키는 가족들을 이야기한다.

'흥' 섹션에서는 김근중·박수만·서희화·윤남웅씨가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현대인들의 소망을 위한 부적과 같은 작품 등을 통해 관람객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시도를 한다.

정정엽·유미연씨는 '생' 섹션에서 '봄'처럼 생명력 가득한 그림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설박·조정태·홍성민씨는 '동' 섹션에서 대자연의 웅장함, 사람들의 역동적 기운 등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가' 섹션에서는 김동기·김영화·양나희씨가 안식처와 같은 가족과 삶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한다. 문의 062-613-539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회화 작 '백수백복도' (百壽百福圖)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